

강의 엿보기

곽성현 교수(기초교육원)의 ‘미래를 위한 자기 이해와 리더십 개발’

언제부터인가 ‘세계화’라는 정체불명의 단어가 우리네 삶에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건 크나큰 변화가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는 일종의 신호탄과도 같았다. 세계화의 물결은 이미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고, 더 빠르게 더 많은 것을 바꾸어 가고 있다. 그 동안 수많은 국경선으로 엄격하게 분리되었던 세계는 교통과 정보 기술 등의 비약적인 발전을 계기로 융합의 길을 걷고 있다. 이제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은 더 이상 단일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초국가적 성향의 사안들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의 변화에 발맞출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미래를 위한 자기 이해와 리더십 개발’(이하 ‘리더십 개발’) 수업은 바로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취지로 출발한 수업이다. 이 수업은 2002년에 처음 경영대학 내에 개설되어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그 후 보다 많은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일반교양교과목(1학점, S/U 평가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쳤고, 현재 다양한 단과대학의 학생들이 이 수업을 통해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매너를 배워 나가고 있다.

강좌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리더십 개발’ 수업은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도록 돕고 자신의 리더십을 함양하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국제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계화의 흐름 앞에서 학생들이 세계의 다양한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글로벌 에티켓과 덕목 등을 인식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강의의 일차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국제적인 무대에서도 위축되지 않을 수 있도록 실력이 뒷받침 된 자신감을 길러주고 오만하고 편협한 서울대학교 학생이 아니라 남들과 쉽게 융화되고 그 속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지킬 줄 아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친다.



이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강력한 장점은 대부분의 수업이 실기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데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에서는 대부분의 수업이 강의실 내에서 이론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리더십 개발’ 수업은 독특하고 차별화된 커리큘럼으로 이론 중심의 강의가 초래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가뿐하게 피해간다.

특히 ‘리더십 개발’ 수업에서 매년 열리는 모의국제회의는 국제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이 수업의 목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오늘날 세계무대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늘어났고 해외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는 학생들의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학생들의 경우 해외 취업에 필요한 실전 기술 등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크게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수업에서는 모의국제회의를 통해 실전에 대비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힘쓰고 있다. 2005년 2학기 수업에서는 모의 APEC이 진행되었는데 당시 실제 열리고 있었던 APEC 개최와 맞물려서 학생들은 직접 자신들이 각 나라의 대표를 맡아 모의국제회의를 훌륭하게 진행해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국제회의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게 되었다.

한편, 사회탐방 및 체험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하는 시간도 가진다. 많은 학생들이 봉사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정작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학생들은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이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관을 선정하고 직접 봉사활동을 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지체 장애 보호시설, 보육원,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집 등을 방문한 학생들은 저마다 자신이 방문한 곳에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면서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닌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

또한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진로 탐색의 기회인 기업 탐방에도 참여할 수 있다. 작년 2005년 1학기의 경우 제일기획, UNESCO, P&G, Starbucks Coffee,



KBS, 김&장, 경향신문, 중앙일보, 삼성병원, GM대우, GS칼텍스, McKinsey&Company, 대한항공, 우리홈쇼핑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기업들 중 각자가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직접 방문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렇듯 학생들이 기업에 방문하고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 기업 탐방은 진로 탐색으로 고민하고 있던 많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동기를 부여해 주고 그 분야에 대한 안목을 넓혀 줄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그 교육적 가치가 크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한 자기 이해와 리더십 개발' 수업에서는 서양식 식사 예법에 관한 실전 교육도 받을 수 있다. 초빙강사로부터 서양식 식사 예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학생들은 직접 호텔에 찾아가서 배웠던 이론들을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2005년의 경우 수강생들은 J.W.Marriot 호텔에서 서양식 식사 예법을 직접 체험하면서 맛있는 식사를 즐겼다. 이러한 교육은 국제 사회에서 활동할 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경우에도 학생들로 하여금 침착하게 매너 있는 행동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2006년의 경우 앞서 설명한 커리큘럼에서 Team Spirit을 중심으로 하는 Team Exercise가 보강되어 팀별 활동이 좀 더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았던 모의국제회의의 경우 기존에는 1회에 그쳤던 것을 3회까지 늘려 보다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국제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그리고 영어 강의를 따로 신설하여 많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영어 실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수업을 맡고 있는곽성현 교수는 경험은 자신감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처음 경험해 보는 건 누구든 허점을 보이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그 경험이 두 번, 세 번 계속되다 보면 누구든 그 속에서 자신감을 얻게 된다. 이 수업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다양하고 알찬 현장 학습의 경험과 국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수적인 에티켓만이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실력이 뒷받침 된 자신감을 가진 학생들을 길러내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닌 남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 수 있는 겸손한 삶의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이끄는 데 있다. 결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아니라 속까지 꽉 찬 멋진 세계 시민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이 수업은 훌륭한 가르침이 되어줄 것이다.

☐ 글/ 홍정민

